

코로나19 영향 '사전예약제' 전남 해수욕장 이용객 급증



원도군 신지면 명사십리해수욕장.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6배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

전국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한 가운데 사전예약제를 시행

하는 전남의 해수욕장 이용객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22일 발표한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해수

전국 해수욕장 250곳 개장 574만명 이용...전년 47% 수준
전남 12곳 개장 후 1일 평균 이용객, 전년 대비 223% 늘어

욕장 250개소가 개장했고 전체 이용객 수는 전년 동기의 47% 수준인 누적 574만 명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해수욕장 방문은 감소한 반면 한적한 해수욕장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전남의 해수욕장 이용객은 크게 늘어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이용일수 대비 1일 평균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대형 해수욕장(21개소)은 지난해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약 2만2000명이었으나 올해는 1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12개소는 개장 이후 총 2만2788명이 방문했다.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235명에서 758명으로 전년 대비 223% 상승했다. 이용객 중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은

977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13%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취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해수부는 추정했다.

사전예약자 중 바다여행 누리집을 이용해 예약한 6129명의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남권 거주자가 가장 많았고 수도권 거주자가 그 뒤를 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는 전남의 해수욕장들은 중소규모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며 "이용객이 늘어도 당초 적정인원을 파악하고 이를 초과했을 경우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춰 '코로나19' 방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광주·전남 주말까지 장맛비 '주룩주룩'

오늘까지 50~100mm 비 예보

광주·전남에 일요일(26일)까지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은 26일 오전까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린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구례 피아골과 성삼재 등 지리산 부근에 8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3일까지 광주·전남에 50~10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곳에 따라 150mm 넘는 많은 비가 온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수 있다. 24~26일에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린다.

비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기온은 25도 언저리에 머문다.

기상청 관계자는 "매우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

"마스크 썼고 접촉 없었는데"...광주 30대여성 감염경로 미스터리

모 치과의원 직원...능동감시 중 양성

광주에서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가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감염경로가 미스터리로 떠올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신가동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191번 환자로 분류됐다.

광주 북구의 B치과의원 직원인 A씨는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확진자인 광주 172번 환자의 노출자로 능동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172번 환자는 지난 9일 발열 증상을 보였고, 지난 13일 오전 9시34분부터 10시20분까지 B치과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이후 15일 검체 채취 후 1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172번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당일 B치과의원을 즉각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172번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한 치과의원 3명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A씨를 비롯한 직원 등 10명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A씨는 진료실이 아닌 바깥공간에 있어 172번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NF95 마스크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는 자가격리, 직접 접촉 없이 노출만 된 경우는 능동감시를 적용한다.

자가격리는 외부 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능동감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담당공무원이 배정돼 하루 2차례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둘다 똑같다.

A씨는 능동감시 모니터링에서 지난 19일 발열 증상이 확인됐다. 21일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18일과 20일, 21일 등 3일간 폐쇄된 치과의원에 출근해 뒷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감염경로를 놓고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 치과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172번 환자와 다른 공간



에 있어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폐쇄된 치과의원에서 사흘 간 뒷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미 방역소독을 마친 뒤였다. 다른 동선을 추적해도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곳이 없다.

보건당국은 오차동 T월드 사례처럼 에어컨 필터나 손잡이 등 환경 오염 가능성

을 두고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172번 환자의 노출자로 능동감시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191번 환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불명확해 매뉴얼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촉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 · 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